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예수님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99년도 신입 사리집사·권찰 후보자 교육 면접

지난 18일 1, 2차에 걸쳐 실시

사리집사 495명 권찰 288명 등 총 783명



지난 18일(수) 수요일부터 2주에 배 후
에는 1999년도 신입 사리집사·권찰 후
보자에 대한 교육과 면접이 있었다. 교
육은 김성관 위임목사의 빌립보서 3장
3-4절 강의와 김희수 목사의 정치기
으로 진행되었다. 김성관 위임목사는
강의를 통해 '인간적인 모습들을 신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으로 봉사하는 일꾼이 될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충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
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강의
후에는 곧바로 각 교구별로 이동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제는 고집사다

말씀보다 밥이 더 급해!
식사 줄서기도 믿음으로 해야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배자생활들이 많다. 기도자
의 기도가 끝난 후에야 우르르 물러들
어오는 발길들은 언제쯤이나 끊어질
것인가. 지각생들의 마음에서는 예배
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게 틀림없
은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거니까'라고 대
답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예배가 끝
나자마자 식당으로 달려가 보자. 식사
에는 지각생이 거의 없다. 그곳에는
조금이라도 먼저 먹으려고 달려오는 사
람들로 몹시 붐비고 복잡하다. 특히 수
요일부 예배 후 식당을 오르는 길은
질서없이 길게 늘어선 줄로 인해 기
의 막혀 있어서 지나가기가 약간 곤
란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입술의
문제라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문제
이다. 따라서 식사 줄서기도 믿음으
로 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
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면접은 주로 신앙의 도리와 그리스도인
의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과 답변
으로 이루어졌다.

금번에 교육과 면접을 통해 내년도
교회일꾼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은 금번
의 교육과 면접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일꾼으
로서 자신의 본분을 잘 살피야 할 것이
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이웃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금번에 교육을 받은 사리집사
후보자는 남자가 214명, 여자가 281명
이었으며, 권찰후보자는 288명으로서
총 783명에 달했다.

학습세례식

오늘 천양예배시 본당에서

학습·세례·입교·개종자 총 199명

98년도 마지막 학습세례식이 오늘 오
후 천양예배시에 본당에서 거행된다.
학습, 세례, 입교, 개종자를 포함하
여 총 199명에 달하는 충현의 가족들이
이제 모든 성도들을 신앙의 증인으로
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임을 고백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다.

현대 교회가 엄격한 제자도를 외면하
고 값싼 은총을 선포함으로써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비
난을 심각하게 듣고 있는 이매에 이미
이 과정을 통과한 모든 충현의 성도들
을 포함하여 금번 의식에 참여하는 충
현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의미에 대하여 바르게
듣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게 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멀리서 고통하는 이웃에 보낸 사랑

허리케인 미치로 온 땅이 조각난

온두라스 등 중남미 3개국에 '사랑의 헌금' 전달

봉사위원회는 지난 주일(15일) 당회
원들의 서면동의를 통한 결정으로 온두
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남미
3개국에 각 3천불씩 총 9천불의 구제헌
금을 보냈다.

지난 10월말 발생하여 11월 초순까지
진행되던 허리케인 미치로 이 지역에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금번에 입은 해
는 지난 여름 수해로 고통당한 우리
나라 피해의 거의 10배 이상 되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온두라스산 하더라도
허리케인의 여파로 밀려들던 폭풍과 홍
수 5천여명이 사망하고 2백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난민
또한 40만 이상이나 되었다(이는 온두
라스 대사관측으로 6월 11일 5일자 기
준의 자료이나, 이후로 피해는 훨씬 더
늘어지고 있는 추세다). 엘살바도르의 경
우에는 11월 4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144명이었다. 지난 18일 우리 교회를
방문한 엘살바도르 대사관 관계자에 따
르면 현재 사망자는 집계하기조차 어
려운 추세라고 한다. 과테말라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11월 4일 기준으로 과테
말라의 사망자는 157명, 이재민은 5만여
명이고 위험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90만에 달했지만 현재의 피해자는 이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금번 허리케인으
로 인한 사망자가 이 3개국에서만 수만
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행병은 콜
레라와 감기와 설사 등의 각종 질병들
과 농산물의 70%가량을 잃은 데서 오는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이다. 그리고 가
장 무서운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쌓아
온 생활의 터전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
현실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절망
이다.



따라서 지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의약품 및 식량과 더불어 현재의
절망을 진정한 소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의 사랑이다. 금번
구제활동을 계기로 하여 신년도 조직에
신실한 비상재해구조봉사대의 신속한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98 노회 성경교사·성가경연대회

말씀 공부와 찬양 배우는 계기로
12월 22일 우리 교회에서

동서울노회 주일학교연합회에서 주
관하는 98년도 성경교사대회와 성가경
연대회가 12월 22일 우리 교회에서 열
린다. 자라나는 천국일본들로 하여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고, 진정한
찬양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는 금번 행사에는
우리 교회 각 교구부서들도 적극 참
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런 기회를 통해
말씀을 읽는 태도를 분명히 가르치고 찬
양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각 부서
에서는 잘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금번 대회의 해당부서는 유년
부부터 고등부까지이다.



98년도 추수감사절 찬양예배 지난 주일 오후 천양예배시의 추수감사
절 특별찬양이 있었다. 찬양곡은 인턴 부르흐의 때때움(감사의 찬양)이었다. 전체적으로 혼성
사중창과 혼성 합창이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는 총 다섯 곡의 연주들 통해 아멘찬양대는 찬양과
간구와 믿음에 기초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특히 마지막 곡인 '주여 믿사오니'의
환기부는 믿음에 대한 절실한 의지를 반복하면서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주여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결코 나를 버리지 마소서'.



김창인 목사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31:1-3)

“애굽과 같이 관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죄를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외로워도 악한 자에게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악한 자의 앞잡이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외롭게 혼자서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구원은 애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만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애굽의 왕 ‘바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오늘날의 주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떠한가

북방의 신흥국인 앗수르가 날마다 창대해지면서 마침내 북조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이때에 남조 유다는 남하해 오는 앗수르군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회개하고 자기네의 막한 사절을 아비르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울바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단독으로 싸워 버리고 하다가 망했으며 애굽과 공수동맹을 맺어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애굽과 동맹하여 처해져 오는 앗수르를 같이 막아 싸우면 무사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 그래서 유다는 애굽의 세력과 연합하기 위하여 비리엘에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유다의 사신들은 좋은 보배들을 악대에 가득 싣고 광야길을 거쳐 애굽 바로 왕 앞에 가서 예물을 바치고 ‘우리와 더불어 동맹을 하여 주십시오’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이 일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앗수르 군대가 강지던 애굽의 군대도 앗수르 못지 않게 강한 나라입니다(1절).

첫째로, 애굽에는 마법이 심히 강해 있었습니다. 예년의 싸움은 좋은 말을 가진 편이 전쟁에는 우세했었습니다. 물고 달과 애굽 말이 세계적으로 좋습니. 그러니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 같았습니다.

둘째로, 애굽에는 병기도 많이 있었습니.

셋째로, 애굽에는 식량이 풍부하였습니. 전쟁에는 식량문제가 대단히 요긴합니다. 아무리 싸우려 우세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넘쳐서 3년을 전쟁한다 해도 걱정이 없

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배울 교훈은 북조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망하는 것은 전쟁을 못해서가 아니고 죄가 너무 많아서 그 값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조 유다도 죄만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주검이 있는 곳에 오지 결코 산 사람에게는 달려 들지 못하는 것처럼, 죄 있는 곳에 신권이 임하는 것이고 죄를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도 마땅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긴한 애굽과 동맹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은 우상이 가득 타락한 세상의 표상이고 애굽 왕 바로는 마귀의 상징으로 사 하나님과 원수 나랴로 유다와도 적대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애굽의 말이 좋다고 하여 그것들을 사라고 애굽으로 가서는 안된다”(신 17:16)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두고 애굽을 믿는 반역입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자니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야 하는데 유다의 보기에 애굽을 믿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을 믿는다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자를 망모치 아니하여 여호와를 향하지 아니하기를 의호와써서도 지혜로 우신즉 제앙을 내리실 것이라 ...”(1, 2절)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를 쓴다면 유대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중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너희의 실령이 평강하여 애굽을 이기고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하여 주었으므로 지팡이만 들고도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미련하게 애굽을 의지하려고 나 여호와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어 깨닫도록 하십니다. “자,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나 여호와를 버리는데 애굽이 내대 무엇이나?” 하시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2.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3절)

절보기에는 애굽이 아무리 막강하여도 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어리석고 악한 인간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유다를 좀 도와 주겠다고 하겠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앗수르와 연합하여 유다를 맹목로 삼기라고 들 것입니다. 당장은 평강처럼 언 말 떨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또 애굽은 유한한 사람이어서 문제의 어느 부분만 해결하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유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2) 유다가 애굽과 동맹하면 돌 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돌은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없되 려서도 다 함께 멸망하리라”(3절)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한다면 하나님은 재책을 들어서 유다도 맹목로 유다를 도우려는 애굽도 함께 멸망시켰다고 하십니다. 고만하고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애굽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다가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애굽을 가까이 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유다와 애굽을 함께 처치해 버리셨다고 하시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 사 약행하는 자의 집을 지시며 행악을 하는 자를 지시리라”(2절)

악을 행하는 유다도 치고 유대들 도 우리 모든 애굽도 함께 멸할 것인데 그래도 너희 유다가 애굽을 가까이 하겠느냐는 경고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사لام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의 품을 떠나 사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고 반역하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마지막에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깨닫고 애굽과 동맹하던 것을 접어 치우고 하나님만 믿기로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치한 옷을 벗어 버리고 배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이적으로 처치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셨습니.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애굽과 같은 강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죄를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 뒤에서 자기들을 믿어 고만하고, 남을 믿어 그 앞잡이가 되고, 우상을 믿어 어리석은 것을 하던 일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올 때에는 이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영혼부터 살 수 있는 길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영혼이 살고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살려 주십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먹혀 버렸으나 하나님을 믿는 남조 유다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다라 큰입니다. 세상의 세력을 믿어 야자” 이것이 육신 사는 길인 것 같은 나 사실은 영혼이 죽고 육신도 죽는 길입니다.

둘째로, 악한 자를 돕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의지하는 자, 즉 악한 자와 연합한 자는 벌 수 없이 망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악한 자끼리 아무리 연합해 보아도 결국은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대를 받고 의뢰되도 악한 자에게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악한 자의 앞잡이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외롭게 혼자서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ㄴ



김성관 목사

에벳멜렉 (예레미야 39:15-18)

“...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목전에 이루어라 나 여호와야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략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야 말하노라.”

본 문 16절에 기록된 에벳멜렉은 남 유다가 멸망해가는 시기에 등장한 구스인으로, 그의 이름은 유다의 멸망 이후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한 시드기야

당시 신자자 예레미야는 오로도록 계속된 당국자들의 반대와 고문과 감금 속에서 한결같이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믿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애굽, 그리고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게임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 시드기야를 향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믿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기의 선택이 가져올 나쁜 결과들에 지레 겁을 먹고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는 살아 남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직 멸망해가는 유다를 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일관성도 견고함도 없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정적인 결점입니다.

말씀보다 더 급한 현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말로 시드기야를 거듭 설득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열심히 듣기는 했지만 선택의 결과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애굽은 점점 강해지고 바벨론은 쇠��해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는 속도로 이런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애굽은 오지 않는걸까?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왜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갔고 할까? 애굽이 계속 싸워 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항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텐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충고에 마음이 끌렸지만 현실의 압박감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황들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합리화는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 전에 예미를 베풀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그 미를 실어 서 말합니다. 자기 집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 주님의 임재하심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주 높은 사

람이 찾아와 신발을 벗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는 아마도 저지하지 못한 채 그냥 들어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불행하게도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광광정광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망설임은 믿음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잘못입니다. 시드기야의 이러한 불신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눈은 뽑혔으며 유다의 귀족들은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레미야를 구한 에벳멜렉의 믿음의 행위는 큰 은혜가 되어서 그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합니다.

분명한 충고자 예레미야

시드기야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바르게 충고했습니다. 성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실히서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레미야의 행동을 무시하고 유대에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유대 땅에 남아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죽여 마땅하다고 하며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으로 던져넣었습니다.

죽은 에벳멜렉의 등장

이때에 왕의 궁정에서 일하는 한 노신 이방인이 예레미야를 구하러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의 멸망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은 초토화되었고 소망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러 온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에벳멜렉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출신으로서 이디오피아 출신이었습니다. 오를 본론 말씀에서 그가 감당하는 역할을 실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으로서 자신

과 무관한 예레미야를 구하고자 왕에게 예레미야의 무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던 에벳멜렉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해냈습니다(38:12-13).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

본문에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뚜렷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알고 있던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행동으로 옮길 믿음과 용기가 없었던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더러운지도 차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같은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였었다.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구한다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다 줄지 잘 알고 있었지만, 에벳멜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대해 다음의 말씀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략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야 말하노라”(18절).

예레미야는 구덩이 속에서 에벳멜렉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을 보냈을 때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된 후 예레미야는 풀려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하셨고, 예레미야는 에벳멜렉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이와 비슷한 예들은 구약 곳곳에 있습니다. 여리고와 기성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준 믿음 때문에 그의 은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요. 도말 여인 뜻은 나오미의 퍼느리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보아스와 결혼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죽도록 했던 사나뎃 파부는 엘리야를 도와 큰 덕분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아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작은 자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속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난 후에 그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오는 믿음

우리는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만약 거저 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할지라도 자신의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마 17:20).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납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에벳멜렉과 같이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세계 10대 기독교 박해국가

또 나를 위하여 구한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엡 6:19)

아래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10대 기독교 박해국가 중 7개국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따라서 선교적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시대의 땅 끝은 이슬람 지역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슬람 교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무려 42개국에 달하며, 이슬람 교도들을 소수민족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도 40개국(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터키 등)에 달합니다. 특히 유럽에 만해도 이슬람 교도들은 6백만에 달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그 숫자는 60만에서 100만에 이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슬람 국가들의 마음을 여셔서 기름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민인 선교사들(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고, 비아랍인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슬람교도들이 늘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지역을 향해 든든한 영적 무장으로 진군해 갈 수 있도록 중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해 순위	국 명	박해점수	기독교인구	기독교인비율	종교, 체제
1	사우디	83.5	600,000	4%	이슬람
2	수단(남부)	78.5	2,400,000	19%	이슬람
3	소말리아	71.0	1,000	0.04%	이슬람
4	예멘	68.0	5,000	0.06%	이슬람
5	북한	67.5	100,000	0.6%	공산주의
6	이란	67.0	200,000	0.4%	이슬람
7	수단(북부)	66.0	2,400,000	19%	이슬람
8	모로코	66.5	25,000	0.16%	이슬람
9	베트남	65.0	7,350,000	9.8%	공산주의
10	라오스	66.5	50,000	1.53%	공산주의

이 시대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어디가 최전방인가

심 진 경(선교위원회 간사)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선포되고 여호수아는 싸움터로 향한다. 그 후 성경은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을 기록하는 기자였다면 확신하건대 최전방에 보내진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방이라고 여겨질 장소에 있는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시며 그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게 하

연약한 모습 앞에 어떤지 모세는 절망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모습의 지도자 모세, 그를 향한 많은 시선들. 우리를 대부분은 지도자의 십자가 연약한 모습을 대할 때 애써 외면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모세 곁에 있는 아론과 훌은 모세를 외면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하나는 이면에서, 하나는 저면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있는 아론과 훌, 결국 이 십자라는 승리를 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선교사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가 아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결정된다

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를 최전방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출 17:11) 전쟁에서 이기려면 모세의 손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야만 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가 승리를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지만 피곤에 지쳐 그의 손은 내려지기만 했고, 그런 자신의

분신을 읽으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본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전쟁의 승패는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가 아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결정된다. 또한 모세 한 사람의 능력에만 집중하지 않으시고 아론과 훌을 필요로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모세와 아론과 훌의 아름다운 협력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 국내외국인선교부 추수감사절 행사 여록 -

11월 15일 주일은 온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킨 날이다. 이날 선교위원회의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도 조촐하지만 의미있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외국인 형제 자매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과일을 가져왔고 내 개의 커다란 바구니에는 과일들로 풍성하게 넘었다.

외국인 형제 자매 약 100명과 교사 및 봉사자 약 50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임마누엘여성주찬당과 고동부 야드니엘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경재 집사 가족의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 연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승수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김영수 부장장로님의 기도로 1부 집회를 끝냈으며, 2부로 나라를 축하 발표시간을 가졌다.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찬양과 성구암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특히 이날에는 필리핀 형제가 처음 참석하기도 하였다.

현재 국내외국인선교부에는 매주일 70명 이상이 출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과거 이슬람(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힌두교도(인도), 불교도(스리랑카, 몽골) 또는 무신론자(중국)였다. 지금은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으며 몇몇 형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일꾼을 모집합니다

1999년도에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 일할 일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야분야 : 교사, 동역 및 번역, 차량, 찬양, 성향, 행정, 식당봉사 등
연락처 : 선교위원회(652-8200) 교한 356-8

담당자 : 박태원 선교전도사, 정은희 선교전도사

예배

새벽기도 이야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한 송 규(장로, 예배위원, 1교구장)

따르릉 하는 소리가 오늘날 새벽을 깨운다. 시계는 새벽 3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기도할 수 있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기창원 원로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도 누구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과 절망이 전에 잠든 마음을 깨우고 기도를 드릴 때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시며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새벽기도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도 비어 있는 많은 자리를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6-46절의 말씀에서 기도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셔서 시기를 놓치고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말



세상과 만나기 전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기도는 나와 사회와 국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

령님의 인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예배위원으로 부름 받고 새벽기도에 늘 참여하고 안내하며 새벽에 예배당을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뵙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먼 거리에서부터 삼삼오오 모이셔서 오시는 분들, 곤하게 잠이 든 아이들을 안고 입고 오시는 분들을, 손을 잡고 오시는 노부부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씀이십니다. 기도하는 나와 사회와 국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총회의 성도님들은 하루에 열 시간을 기도해도 부족한 것을 알고 더욱 더 기도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감사예절

11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소박한 마음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며

97년도에는 총무부장으로, 98년에는 총무로, 청년부에서 다시 2년 동안 임원으로 역할을 했다. 2년 동안 교회 일에 힘겹게 헌신한 적이 많이 있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98년도에는 총무라는 중요한 역할을 나에게 맡겨 주신다는 책임감이 더해져 나에 모르게 불평도 많이 했다. 교회 일에 신성쓰느라고 내 개인적인 할 일들이 점점 미루어지다라는 생각이 불행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감사할 게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먼저 다음회기에 되는 부목사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2년 동안의 헌신을 통해 드려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셨다.

나는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자기 자신과 싸움이다. 모든 문제가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적의다. 그래서인지, 나는 혼자 생각하고, 하고 혼자 일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 나를 사람과 협력하고 그들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은 희의 일은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우리 청년 지체들과 동역 가운데 깨닫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변화되게 되었다. 나의 한계 깨닫는다는 지체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청년 지체들의 그리스도께 담은 성품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사랑을 얻게 하셨고, 개인적인 시기에 갇혀 있던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오래 전의 내 기록에도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오래 전,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모든 것
이 낯설었던 나는 이런 기도를 한
동안 했었다. '하나님! 당신을
잘 모릅니다.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알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지 약 10년쯤 지난 것 같
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그분을 배 너로 본
적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다. 나는 하
고 잘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본들자같이
나를 알고 계시며 내 생각과 계획을
사람을 품고 계시며, 당신의 뜻대로 사
나를 연단하고 계신 분을, 원임으로
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가
나. 그래서 나의 기도는 언제나 감사의
된다.

함께한 지체들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은총의 손길

언제나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나의 기도

청년1부 지체들의 사랑의 말

♡ 2월 9주 주은의 조장 영진 자매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사랑의 교제 안에서 힘을 얻어요. 보고 싶어요 / 영유아! 사랑까지 기대라! / 순철아, 미경아, 영아들, 언약이 사랑해! ♡ 2월 10주 지희와 조장 기운이! 지장에서는 피곤하지? 하지만 참 감사하다. / 애자 언니, 늘 하나님을 모시길 원하는 그 가슴에 늘 꽃아와 주시길 기해요. / 의식아! 너는 꽃아와 늘, 주님 안에 거해. / 명진 언니 건강해! / 규백 오종 두개 공부 열심히 해. / 신영 언니 늘 넉넉한 마음이 참 좋아! ♡ 2월 15주 이숙광 조장 두하야! 힘내라! 네가 많이 힘써 회개! 회신아 너는 출석 100% 재가 감람을 받았어! / 박윤경 언니 건강하게 재가 연약 자들 함께요. ♡ 2월 14주 이수경 조장 가을이 깊은 어느 토요일 오후 미사리조장정경조장도 자전전을 타러 갔다 왔습니다. 벌써, 유영, 수정, 조경, 수경이 모국분에서 감사장 오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깊어가면 좋겠습니다. ♡ 3월 17주 장은순 조장 현수 언니 조카 태생 축하드려요. 지하 오종 공부 열심히 하구요. 동원 오빠 비바 문제 잘 해결되길 기도 열심히 하세요. 17주 조장 모두 사랑해요. ♡ 5월 35주 김유영 조장 주노 조원들(경진 오종, 현하 언니, 구형이, 유진이, 인성아, 그리고 단영이와 필요) 모두 사랑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 5월 36주 신미라 조장 한혜 동안 일원으로 수고한 회원입니다. 아름다운 선양을 부르는 교회 언니. 어느 사람 열광만 보면 클로즈업 하는 건담 오빠! 항상 티끌한 모습으로 완공들을 기쁘게 해 주는 종래 오종, 모두 너무나 사랑해요. ♡ 5월 35주 이소영 조장 모두의 관심 속에서 태복들을 마치게 되었고요. 그동안 나누었던 교제와 은혜가 환상 속에 융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월 36주 김수진 조장 책, 복남, 용진, 혜숙 언니, 지연 언니, 조장(수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사랑이 되었을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5월 38주 임현지 조장 병후 오종, 지아 언니, 인성 오종, 황승아, 미선아, 민경아, 지원아, 그리고 현지 아들이랑 이희 조입니다. 한 학기보내서 조원 각자 각자에게 참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사랑해요. ♡ 7월 47주 병성주 조장 언제나 부족한 간식에 불평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주는 조원들에게 영육간에 말없는 배부름이 풍성해지기를. 배나은 조장 ♡ 7월 49주 조 한정은 조장! 태복들을 통해 제니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GBS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조원에게 영감을 줍니다. 49주 화이민 ♡ 7월 51주 양성민 조장 너무나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경 언니, 대신 오종, 영애, 의성아, 승준이 모두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 8월 55주 김형주 조장 말씀으로 생애를 보시는 우리 자매 다들 사랑합니다.

미아!

너로 인해 감사드리며

송 영(70동기)

오늘 미야의 메일을 받았다구나. 저는 아
침마다 메일이 몇통이나 와있을거, 특히 오
래처럼 일찍 도착하니 좋아야 하는 날에는 은근히
걱정일 되는데 그런 중에 섞여 들어오는 미야의
메일은 나의 하루를 얼마나 빛내 주는지?
그날은 하루가 즐거워요. 마치 연애 편지를 받
는 기분이 듭니다. 미야랑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지리 못한 이야기
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 정말 다 그
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에게 형제, 친구
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표현하기 어렵습
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요. 간혹 안아 주고 싶긴
한데, 새까맣게 끝날 뿐

내 형편 때문에 불평스러워질 때
나를 바꾸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공부 시간에 나온 얘기지만 미국 사람들은 애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도 무슨 서로 안 만나고, 하지만 우리는 어쩌다 주일에 한 번 목사님에게 시켜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고 웃는게 전설이고 그것도 건성으로 애써하게, 강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사랑과 혹은 사운함까지도 그 감정을 할 다스리고 표현하는 권리도 갖게 된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더 부끄러워할까요. 표현함으로써 사랑은 더욱 따뜻하고 깊어지며 견고해질 것이고, 간혹 사랑에게 느끼는 섭섭함이나 오해도, 오해 사기에는 또한 섭섭함, 안부

리 사랑하는 사이로만 사람은 늘 서로에게
평범히 갈수록 느낄 수는 없잖아요. 네 노년
걸음 걸었을 것 같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것만 일에도 마음 때가 있거요, 정말 평강한
변덕이더냐, 정말 그 순간에는 앞으로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각
정할 것 없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결정해 주시니까요. 하나님, 제는 도대체
저래요 하고 하나님께 이르면 어느새 하나님
께서 그 상대를 바꾸어주시고 아니라 제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 잘못
보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걸까요?

우리, 우리 그동안 하지 못하고 가슴에 답

어두웠던 말, 해보는 게 어떻까요? "미아야, 정말 말도 그래. 너와 같이 일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걸지 몰라. 하지만 뽀스 나 너를 엉망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았어. 네가 나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다는 거 알아. 싫은 건 고백하되다 내색하고 마는 네 자신이 너도 싫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 나는 항상 네가 주지만, 또 네가 해주고 애들보다 그늘 내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줄 수가 없었고 그저 안타깝게 마음뿐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너를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어느때도 너를 아끼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실거야. 너는 그날의 너를 볼 수 있어."

십자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선물 - 추수감사절 찬양예배를 마치고 -

원 용 숙(집사, 아펜찬양대원)

새해가 시작되면 찬양대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하나 있다. "올해는 우리 찬양대가 어떤 절기에 특별 찬양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이다. 해마다 한반씩 드리게 되는 음악예배인데 뭐 그렇게까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음악예배는 찬양대원들을 하나로 묶어 주고 음악적인 성장은 물론 영적인 성숙까지 이루게 해주는 찬양대원으로서 아주 귀한 행사이다.

신록의 푸르름이 절정을 이룬 올웨의 어느 날 지휘자 집사님께서 추수감사절 음악예배로 안톤 부르흐너의 '메대움'을 연주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실 때 만해도 대원들은 '아, 또 새로운 곡을 하나 배우게 되는가 보다.'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악보를 받고 찬양곡이 녹음된 테이프를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대의 심각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선선 곡의 웅장함이 우리를 압도했고 소프라노의 음역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지까지 이르도록 높은 음역이는데 자신을 잃고 말았다.

연습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연주로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저히 소프라노의 그 높은 음역(C³)을 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내면에는 비슷하게 소리내느라고 노력했는데 음은 자꾸 떨어지고 자신이 없어졌다. 음악적인 어려움은 컸더라도 대학교입시를 앞둔 고3 학생과, 고3 강의를 맡고 있는 학원의 강사의 시간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다.

찬양대원이 되고 11년째, 한번도 찬



높은 음역도, 연습 시간 내기 힘든 여건도 모두 해결해 주시고 감사의 찬양 부르게 하신 주님께 영광

양예배에 불참한 적이 없었으니 이번 한 번은 하나님께서도 봐 주실 것이라 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연습에 빠지기를 몇 번. 어느 날 운전 중에 우연히 집이 들은 것이 '메대움' 테이프였다. 웅장한 합창과 간절하고 경건한 4중창, 특히 클라리넷의 소박하고 고독한 음색은 나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음악적인 감동으로 '메대움'에 함께하고 싶었기 만 그 높은 음과, 연습시간에 맞추기 힘든 주변 여건들은 여전히 나의 십자가였다. 망설이는 나에게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셨다. "원집사, 음악예배 포기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돼." 맞는 말이였다. 깨끗이 포기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했고 함께하기에는 주변의 여러 가지들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고민 중에 연세가 석고시간에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십자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선물이다."

머리가 맑아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선물을 받는데 주변을 의식할 필요는 없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인도

하시는 대로 따르리라 다짐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높은 음역도, 연습 시간을 내기 힘든 여건도 모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리라.

그동안 빠진 연습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시간이 나는 대로 테이프를 들으며 따라 불렀다.

"다 찬양하나이다. 주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모두 받든 나이다. 우리를 도와 주소서.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백성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부끄럼이 없나이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연습이 거듭될수록 '메대움'의 간절하고 소박한 음들과 화려하고 웅장한 음색, 부르짖는 그대로 기도가 되는 가사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악보를 안고도 도 찬양을 드릴 수 있게끔 되었을 때 도저히 안될 것 같던 높은 음도 어느 순간 엔가 거의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6개월 동안 총 57회의 연습을 마치고 추수감사절 음악예배를 드림에서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지극히 이기적인 내가 부끄러웠고, 음악적인 재능만을 따졌던 내가 부끄러웠다. 아들의 평계를 내면서 도 정작 그 아들에게 잘해 주지 못한 것도 부끄러웠다. 이것저것 합리화시키는 이기적인 엄마의 모습보다는 주어진 여건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이 더 오래 기억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부흥된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

이시이 토모히사
(일본인, 사범부 교사)



저는 일본 오카야마라는 지방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집안은 할아버지때부터 믿기 시작하여 부모님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도 안되는 일본에서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분간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온갖 사탄의 꾀를 당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위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제가 꼭 주님의 품속으로 돌아오리라는 확신 속에 항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간절히 회개하고 중생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께 저의 삶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한국인 유학생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학생의 열성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주 그 학생처럼 신앙생활을 받았는데 그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저는 사범부에서 봉사하면서 총신대학 신학과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학생생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도 재정문제도 학업까지 포기하고 했을 때 총신교회의 지원으로 계속 신학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의 사명을 다하는 데 정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한 할의 씨앗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듯이 저의 이런 신학교부가 일본이라는

한 앞의 씨앗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듯이 저의 신학교부가 일본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큰 결실로 맺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었고 한·일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 회개와 용서, 오소와 성김의 모습이 가깝고 먼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다. 부흥된 나라에서 직접 신앙생활을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이 좋겠다고 그는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94년도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학원 선생님의 소개로 총신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가 적은 일본에서 갖기 힘든 풍성한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일본에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확신하였고 보고 싶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신학교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느꼈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신앙생활, 주님만 의지하는 깊은 믿음만이 이 어려운 일들을 극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큰 결실로 맺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특히 학업을 하는 데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해 주신 대학부 친구들과, 그리고 총신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 회개와 용서, 감사와 성김의 모습이 가깝고 먼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족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저에게도 맛보게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엄마와 아빠들이 과일과 채소가 되어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며 많이 모여 달라는 이야기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아부 모든 교사들은 예쁜 반복으로 단장하고 한해의 감사함을 찬송과 율동으로 표현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서로 불려하는 가운데 사랑의 꽃이 피고 있어 감사하며 지난 한해의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를 배우고

유아부 친구들은 지난 11월 15일을 추수감사절로 드렸습니다. 끝내 한국을 차려 입고 나와 하나님 주신 곡식과 과일을 바쳤습니다. 어눌한 말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송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라는 어린이들이 우리입니다. 어디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4, 5세 어린이들. 다음 주일에는 꼭 유아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미순 통신원)

유지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유지부 어린이들의 찬양이 들려오는 예배실을 채우는 감사나눔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사일예를 예배에 올리고, 그리고 해서 결실의 나무에 붙여 보기도 했습니다.

유지부 벽면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만든 감사나눔들로 왕관들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 2부 각 예배 후에는 성경이야기 예선도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성령의 율령으로 메아리로 멀리멀리 퍼

지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선이 있습니다. 성경동화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자신감 넘치는 하나님의 사자로 주의 어린이로 자라가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조혜정 통신원)

유년부

결함한 유년부실

유년부에는 유년부실을 예쁘게 꾸미고 행사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환경홍보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환경홍보팀을 소개할게요. 먼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팀장 막은주 선생님은 유년부 1학년 12반 선생님이세요. 각 행사의 헌관을 담당하고 계신 데 주로 행사의 주제 성구를 유년부 어린이들의 시각적 감각에 맞게 나타내고 빈 어백은 꽃과 동물로 꾸밈고 산뜻하게 꾸며 주십니다. 부팀장이신 삼광님 방미에 선생님은 2학년 16반을 맡고 계세요. 박성자님과 황화포님을 담당하십니다. 1년 1반에 2반 유년부실 벽을 개질 각자를 느낄 수 있는 색감이나 주제로 설정하여 표현하고 있고, 행사때마다 천정등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신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년 같은 환한 미소를 지닌 김도희 선생님은 1학년 14반을 맡고 계세요. 주로 예배실 환경미와, 행사포스터, 조장간지 조판기를 담당하십니다. 행사내용을 위주로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그림이나 카드를 디자인 하신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동안 수고하시며 애쓰시는 선생님들, 정말 유년부의 보석과 같습니다. (오은혜 통신원)

초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한 추수감사절

지난 주일에 초등부에서는 추수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과일을 가지고 우리 모이 인원을 구역에 있는 '참 사랑회 소망의 집'에 보냈답니다. 참 사랑회 소망의 집은 무위탁 공동

체로서 어린이로부터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체 장애인까지 총 60여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손길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면 합니다. 또 '감사를 하나님께'라는 인형극을 통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농작물과 농부 또 태양 등이 등장하여 서로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자랑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2부

"나그네 집"을 다녀왔어요

지난 주일, 추수감사예배를 드린 후 여름수련회 때 다녀왔던 '한살랑 마을'과 하나님에 있는 '나그네 집'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몇 가지의 생활용품과 농구, 그리고 과일과 쌀 등을 가지고 몇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가을걷이가 끝난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며 누운가를 기다리기로 하는 듯 앉아 있던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한절 밭아보이는 모습 속에서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성애 통신원)

12교구

비록 무위탁과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여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들 금년도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냈던 지난 주일에 교구 작은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우리의 개질을 성경하듯 각종 과일로 꾸민것에 바구니를 만들고 떡을 떼며 과일과 음료수를 서로 권하며 나누면서 잔치는 무르익었습니다. 이른 봄 정성으로 발췌한 살뜰한 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되어 유년부의 재물을 결집한 찬양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리는 시도 남송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주 앞에 왔음을 감사 감격하여 눈물로 감동하는 성도들의 감동을 들으며 아름다운 성도간의 교제와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 엄청난 수해와 경제 한파로 우리의 생활이 어려운 유년회 어린이들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돕고 서로 고충을 나누면서 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총임을 느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혜정 통신원)

15교구

감사와 축하가 넘친 교구모임시간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트럼펫 2중주(최두무, 최은재), 여성2중주(김명자, 김연영 집사), 호른 독주(민희진) 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이어 12반 동안 15교구에서 봉사하신 강순을 장로님의 정년 퇴임식과 6교구로 가시는 오인숙 전도사님 이 일 인사와 있었다. 신임 교구장 이갑재 장로님이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신임 이사대신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교구장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한옥성 통신원)

중원복자관

학교 생활 적응 훈련 실시

교육재활과에서는 지난 11월 9-13일에 취학을 앞두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 훈련을 실시했다. 4박 5일 동안 복지관에서 생활하면서 역삼역에서 복지관까지 스스로 찾아서 걸어오는 등하교 훈련, 조식 연습, 학교수업 익히기, 기발 책기, 급식 등 다양한 학교 생활을 경험하였다. 또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직접 길을 물어 버스표를 타고 인근 대중 식당에 가서 직접 식사를 주문하고 먹는 등 지역사회 시설 이용 훈련도 했다.

탐방 / 5교구

주를 향한 소망 품고
민음의 경주

시간의 현신 통해 성장하는 믿음 돋보이는 교구
각 개인의 신앙 성숙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

충원교회가 통솔하게 그 뜻을 감당해가는 데에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교회 내에 작은 공동체에서 큰 공동체까지 단계까지 충원을 이루어 구성원 조직들을 활성화 해 이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충원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바로 교구이다.

우리 교회에는 외국인 교구와 청년 교구를 포함하여 19개의 교구가 있다. 이 19개 교구 중 한 구성 요소인 5교구를 소개한다. 5교구는 개포동, 일원동, 포이동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5교구를 담당하는 교구장은 이종석 장로님이고, 교역자는 권상현 목사님과 현정남 전도사님이다. 5교구에는 7개 지역과 50개 구역이 있으며 약 500세대가 있다. 각 구역과 지역에는 헌신적인 구역장과 지역장이 많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구 내의 각 기관은 구역을 최소 단위로 하여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교구를 담당하시는 교역자들은 교구 내의 모든 사정을 소상히 들여다 보시고 교회에 따라 적절한 처방들을 내리고 교인들을 돌보고 있다.

각 교구는 일반인전 관점에서 보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닌다. 5교구의 특성은 구성원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5교구 내에는 다



양한 주위형태가 혼재해 있고 그에 따라 삶의 환경도 여러 양상이다. 그래서 어떤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세상에서와는 달리 교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5교구의 자랑은 우선 잘 모이는 교구라는 것이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가족 중 아직 믿지 않는 식구들을
복음 안으로 초청하는 일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가장 높은 교구가 5교구이다. 물론 잘 모인다는 것 하나만으로 믿음의 척도를 삼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적어도 주를 위해 시간을 내는 일에 매우 헌신적이다. 일꾼들은 매주일 오후에 가지는 교구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의 소식을 나누며 구역별 공과를 미리 공부하고 구역의 일을 논의한다. 지난 추수감사절 주일에는 교구내 총동원 찬양대회를 개최하였는데 240명 정도의 가족들이 모여 신의의 경주를 벌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 하나의 자랑은 협력하는 교구라는 것이다. 5교구는 자체 내에서 헌신적인 구제를 힘쓰며 스



스로 연약한 가정을 돕는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 초대 교회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실현하고 있다.

5교구는 주를 향한 끊임없는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교구이다. 권상현 목사님의 앞으로 계획은 교구 내에 가족 중 일부만 믿는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집중적인 힘을 쏟을 생각이다. 그리고 각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심어 주고 이미 믿고 있는 이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신앙의 성숙을, 많은 봉사로 헌신하는 일꾼에게는 그 봉사가 내면생활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성 훈련을 할 계획이다.

우리 중 누구라도 혹시 교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소원한 적이 있었다면 그 서운함을 교구에서 찾아 주려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 원한만은 언제나 묻이 열려 있는 교구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그리고 구역과 지역과 교구의 각각의 뜻을 잘 감당하여 세상살이에 처처 있어 불평한 영혼들을 감싸 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 성도 한 사람과 교구, 또 지역과 교구는 서로 긴밀한 손을 잡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자. (글/정영희 기자)

교 회 소 식

● 알림

1. 구제헌교 안례 / 29일(다을 주일) I, II, III, IV, V부에서 드립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제4차 학습 및 세례식 / 오는 한양에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오시 4시 30분까지 지정된 알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 중등학 학부초창교회 / 29일(다을 주일) 12:30-1:30에 교육회 503호에서 있습니다.

● 정보

1. 집로 회오새벽기도회 / 24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오새벽기도회 및 성경공부 / 23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갈릴릴루
4. 교육위원회 총회 / 대상: 신·구 교구장, 오는 15:30, 당회실
5.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26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6. 안수집사회 총회 / 오는 15:30, 교육관 212호
7. 본교회 제4회 월례회 / 25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 남년전도회

1. 바. 올 2총회 / 오는 구교모임 후, 아멘홀
2. 바. 올 9총회 / 오는 구교모임 후, 교육관 414호
3. 바. 올10총회 / 28일(토) 18:00, 궁중해물탕(997-4244)
4. 바. 올12총회 / 오는 15:00, 교육관 212호
5. 바. 올15총회 / 28일(토) 19:00, 남부박국수(사울대 전철역)
6. 베드로 1총회 / 오는 한양예배 후, 양한민 집사택(552-6827)
7. 베드로 5총회 / 28일(토) 19:00, 김동훈 집사택
8. 베드로 7총회 / 26일(목) 19:30, 안수관(구) 사랑방 거든
9. 베드로 9총회 / 26일(목) 19:30, 안수관(한민목동, 494-8879)
10. 베드로10총회 / 오는 19:00, 함정주 집사택
11. 베드로12총회 / 28일(토) 17:00, 김동주 집사택(834-1601)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765	김영화	1	청년2부	양혜영(4)	1772	정영철	17	바울	정영희(6)	1779	신상진	19	청년2부	황규리(19)
1766	김보순	1	청년2부	양혜영(4)	1773	박경선	17	한나	정영희(6)	1780	김종섭	5	예배다부	
1767	김만삼	2	바울	장숙자(2)	1774	김민선	19	청년1부		1781	이승준	16	예배다부	이덕호(16)
1768	최형지	2	청년2부	손인순(2)	1775	이종곤	19	청년1부	구혜정(13)	1782	구요지	18	국제	
1769	김순덕	6	한나	이승익(6)	1776	홍성리	19	청년1부	전봉자(3)	1783	예배자부	18	국제	
1770	정복일	11	바울	김부덕(11)	1777	이미석	19	청년2부		1784	민원희	13	소망부	박도심(13)
1771	김관중	16	청년2부		1778	신종철	19	청년2부	황규리(19)	1785	조명화	19	대학부	신향현(19)

※총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알림

나뭇잎 이야기

문 하숙(집사, 16교구)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저 자신은 없지만 어렸을 때 읽은 동화 한 편을 소개한다. 어느 숲 속에 나뭇잎 하나가 자라고 있었다. 때는 봄이었고 세들도 나무들도 시냇물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었다. 온 숲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나뭇잎은 동료 나뭇잎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왜 그들이 찬양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도록 숲 속의 찬양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나뭇잎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다른 나뭇잎들과 함께 찬양할 수 없었다. "대제 하나님아 누구시기에 다들 저렇게 기뻐하며 노래합니까..." 나뭇잎은 궁금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다. 나뭇잎들은 이제 붉은 색, 노랑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대제 하나님은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나뭇잎만은 혼자서만 붉은 색이 되어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숲 속의 나뭇잎들은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결국 숲에는 그 나뭇잎만 홀로 남게 되었다.

나뭇잎은 생각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이것을 떠날 수 없어." 겨울이 오고 숲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북풍이 불어치는 어느 날 그 나뭇잎은 세찬 바람에 휩쓸려 멀리 강가에 떨어졌다. 얼마 후 그곳에 놀러 나왔던 아이들은 눈 위에 놓인 나뭇잎을 보고 한겨울에 보는 파란 나뭇잎이 신기해서 주위 들고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보여드린다. 어머니는 그 나뭇잎을 성경책 가죽에 끼워 놓았다. 긴 겨울 동안 그 가족들은 매일 난로가에 둘러 앉아 성경을 읽는다. 그 겨울이 끝나간다면 어느 날 성경을 펼쳐 본 아이가 길게 단성을 지르며 나뭇잎을 들어 보았다. "아! 이제 봄 보세요!" 파란 나뭇잎이 어느새 찬란한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가을이 되면 더 자주 나뭇잎을 생각하며 내 영혼을 가늠해 본다. 과연 내 영혼의 빛깔은 어떤 색깔일까? 지금 내 영혼은 주님과 깊은 사랑에서 오는 반짝임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삶의 빛, 놀임과 안식의 황금빛을 말하고 있는가?

11월 29일 예배 전 찬양과 묵주자

◆ 2부예배

목권양성

(합창부:유아교(스트라)

<찬양곡목>

- 평화의 기도
-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 갈보리산 위에

◆ 3부예배

브리델여성중창단

<찬양곡목>

- 저 피는 본향집
- 주가 축복하리라
- 새 생활 시작했네

◆ 4부예배

브리델여성중창단

<찬양곡목>

- 저 피는 본향집
- 주가 축복하리라
- 새 생활 시작했네

◆ 5부예배

찬양 및 기도회

인도: 이승학 목사

총현 중보의 창

① 감장인 원로목사와 감성관 위임목사께서 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② 교육과 면접을 받은 99년도 서리집사·관할 후보자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소서.

③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겨울학기 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께 맡겨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열매 맺게 하소서.

④ 대학입시를 치른 고3 및 재수생 지체들과 그 가정들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열리게 하소서.

⑥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들과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게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어 치유하여 주소서.

⑦ 학습 및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⑧ 99년도를 위한 인사 개편을 통해 총현교회 5대 목회자가 더욱 구체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새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하라 하소서.

⑨ 허리에 긴 미로로 깊은 절망에 빠진 은두라스, 열살바도르, 파테발라 등 중남미 3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 절망에서 진정한 소망으로 바뀌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장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현 김동성 김희수 전영준 김재철 이종수 정갑선 정현민 조문환 조희수 김동하 차명환 김병대 김인식 김상현 서광진 이명학 김해성 박노철 이은정

■ 협동목사

윤영대 박형용 노봉린

■ 신도장

이은조 안석원 김영대

■ 원로전도사

이두만

■ 전도도사

최준복 정연희 현갑선 정영자 임태주 김경자 배옥인 최희재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배유진 오정숙 오인숙 김유진 함영준 박종화 김영숙 김복은 최영란 김연석

■ 교육전도사

박영덕

■ 고교전도사

박진기 염원일 한승일 김영기 송원식 김기종 조재민 허용구 이우란 김병수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광

■ 원로전도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경 고은빈 하요셉